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 권창영
학번 : 2012-11296
기간 : 2018.03 ~ 2018.06

2018년 3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4개월간 프랑스 EMSE에서 교환학생을 하였습니다. 본 글이 다른 학생들의 교환학생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Projet Industriel(PI)입니다. PI는 프랑스 스타트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성 수업이며 학생들끼리 팀을 이룬 뒤 스타트업(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어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가 목표인만큼, 프로젝트 간 기술적 부분 외에도 제품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PM, 팀 관리, 특허) 또한 비중있게 다룹니다.

PI는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진행합니다. 첫 학기 간에는 제품 개발간 필요한 이론을 수업한다면, 다음 학기에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및 발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2학기 말 제출하는 여러 보고서와 발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가 책정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기(3월~6월)만 참여하였습니다.

1. 교환학생 준비

교환학생 준비는 (1)학교 서류 제출과 (2)학생 비자 수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서류 제출은 EMSE와의 교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우석 교수님과 대외협력부 김희선 선생님, 그리고 그 전 교환학생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했습니다(공식 홈페이지에는 잘 설명되어있지 않습니다).

EMSE로부터 등록증을 받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신청으로부터 받기까지 2~3개월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업

프로젝트가 주인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시간을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그 외에는 언어수업과 자율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이상 일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언어 시간인 화요일 오전 수업, 그리고 자율 체육 시간인 목요일 오후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08:30~12:00	프로젝트	외국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12:00~13:30	점심식사				
13:30~17:00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자율 운동	프로젝트

<시간표>

2.1. 프로젝트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PI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어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팀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1학기를 수강하지 않는 저희에게는 그냥 프로젝트라고 말해두 무방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젝트에 할애합니다. 프로젝트 동안의 일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1. 주제와 팀 배정

제가 교환학생으로써 프랑스를 갔던 3월은 유럽 학기로는 2학기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다른 학생들은 1학기동안 이미 팀과 주제가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이미 만들어진 팀들 중 한 팀의 팀원으로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특기를 토대로 한우석 교수님께서 팀과 주제가 배정됩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모든 팀이 다릅니다. 저희 때는 총 17개의 PI팀이 넓은 학문 범위의 서로 다른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의 주제는 <생체전극 신호 처리를 통한 눈동자 위치 추정>였던 반면, 어떤 팀의 주제는 <새로운 회로를 통한 금속인식 모듈 개발>이었습니다. 전기 관련 주제 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주제를 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작업일지, 이론적 배경지식과 실무지식 모두 팀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실무지식에 있어서 타학생들에 비해 부족했었습니다. 팀원들이 숙련되어있던 STM32 보드 프로그래밍과 LABVIEW 인터페이스 개발 모두 맨땅에 헤딩식으로 개발과 동시에 배워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측면에서 다른 팀원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덕에 큰 스트레스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팀원은 일반적으로 3명~6명입니다. 팀의 성격은 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팀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2. 수행

역할 분담은 제가 팀에 합류한 뒤 바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오후 등교시간에만 출석체크를 하며, 그 이후 학교는 어떠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교실 내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분위기이며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해결합니다.

매달마다 project management, team management, 권리 보고서 관련해서 워크샵이 진행되며, 저희 팀의 경우에는 2주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여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 및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2.1.3. 보고서 작성

해당 프로그램 간 작성해야하는 보고서는 원래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품을 제작한 팀과 클라이언트 간의 권리를 조율하는 보고서(law report),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입니다. 둘 모두 프랑스어로 작성하며(!), 저는 팀원들이 배려로 기술 보고서의 일부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권리 조율 보고서의 경우, 제가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으며 법률 용어가 어려운 관계로 팀원들이 배려해주었습니다. 기술 보고서 또한 프랑스어로 작성하지 않고 영어로 작성한 내용을 친구가 직접 번역해주었습니다).

기술 보고서의 목적은 개발 내역의 인수인계입니다. 그러기에 배경지식을 시작으로 사용한 알고리즘, 칩의 종류와 특성, 코드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고서 분량은

60~100페이지로 입이 떡벌어질만한 양이지만, 실제로 3개월간 했던 내용을 찬찬히 살피며 작성하다보면 금방 분량을 채웁니다.

2.1.4. 발표

팀 발표는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2주간 방학을 마치고 난 후, 그리고 다른 한 번은 학기 마지막 평가용 발표입니다. 방학 후 발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반면 학기말 발표는 평가용 발표입니다.

학기말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팀당 1시간입니다(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평가의원 3~4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평가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발표 전 클라이언트와 두번의 모의 프레젠테이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팀원들이 미리 평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팀원들은 프랑스어, 그리고 저는 영어로 하였습니다. 발표는 개발과 기술 보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 1~2주 이후 발표가 진행되어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2.2. 언어 수업

언어 수업은 영어 제 2외국어 수업, 그리고 tutorial이 있습니다. 제 2외국어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교환학생은 프랑스어를 선택합니다. 단, 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들은 모두 프랑스어 일반회화 가능한 정도의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업 시간동안 프랑스어 관련 지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래도 가면, 같은 교환학생 처지의 친구들 얼굴을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프랑스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독학과 동시에 tutorial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Tutorial은 언어 선생님과 학생의 30분 1대1 프리토킹 시간입니다. 영어 선생님과 제2외국어 선생님과 격주로 진행하며 프랑스어를 마음껏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기초 수준밖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 측의 배려로 매주 프랑스어 tutorial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어 선생님이 열정적하시고 친절하십니다. 30분 넘에 수업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알고 싶은 내용, 요청한 자료들도 전부 준비해와주셨습니다. 프랑스어 실력 향상을 위한다면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3. 수업 외적 생활

3.1. 관계 맺기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랑스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숙사 중앙 잔디밭에서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잘 하므로 영어로 열심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학교처럼라서 교환학생끼리의 모임이 존재하지 않는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3.2. 주거와 식사, 빨래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주변에 기숙사 외 학생이 거주할만한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인 다른 도시에서 차를 몰고 등교하기도 합니다). 기숙사 월세는 440유로입니다(CAF로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은 원룸 상위 호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엌과 화장실이 각 방별로 있으며,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불, 침대, 수건, 베개는 제공되며 이불은 직접 빨 필요없이 매주 수요일에 직접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해먹습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어 해먹어야 합니다. 교내 식당이 없을 뿐더러, 다른 식당을 찾기 위해서는 걸어서 20분 거리의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재료를 사놓고 식사시간에 요리를 해먹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는 걸어서 15분정도 걸리는 Leader Price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GS 슈퍼마켓 정도의 규모입니다. 1주일에 50~60유로 정도로 식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음식이 끌릴 때에는 기차타고 10분 거리 엑상-프로방스에 있는 작은 아시안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Gardanne에는 아시안마트가 없습니다).

빨래는 기숙사 내 공용 빨래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빨래 공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1회 사용에 3유로, 건조기는 1유로입니다.

3.3. 여가 생활

Gardanne에는 여가 거리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는 주로 걸어서 30분 걸리는 헬스장을 다니며 시간을 떼우거나, 영화를 보거나, 주변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Gardanne는 도시 자체보다는, 주변에 남부 프랑스 유명하고 할 거 많은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 2의 도시 마르세유(30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엑상-프로방스(10분), 그 외에도 아를(1시간 30분), 아비뇽(2시간) 등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니스, 모나코도 다녀와볼만 합니다. 하지만 파리로부터는 거리가 있어(TGV 4시간) 방학동안에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맺는 말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많은걸 느낀 소중한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준 서울대학교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